



金井 議政

제2013-1호

2013년 1월 3일(목)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議會 先進議政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기 간 : 2012. 11. 14.(수) ~ 12. 21.(금) ▶38일간

■ 장 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

■ 참 석 : 의원전원

■ 안 건

-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 의안 심사결과

연번	의안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3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회 변경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07	'12. 12.05	수정 가결
7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8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9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10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11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2. 11.07	'12. 12.05	원안 가결
1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2. 11.07	'12. 12.13	수정 가결
1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12. 11.07	'12. 12.21	원안 가결

의정 일지

일시	내 용	비고
12/4(화) 10:00	·조례안 심사(각 상임위원회)	의원
12/4(화) 19:00	·금정 JC회장 이취임식	의장
12/5(수) 11:00	·제2차 본회의	의원
12/5(수) 12:00	·청룡노포동 부녀회 김장행사	의장
12/5(수) 14:50	·201 2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의원
12/5(수) 18:30	·자치위원장 협의회	의장
12/7(금) 18:00	·금정구 청년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의원
12/7(금) 19:10	·2012 금정가족문화 한마당	의장
12/10(월) 17:00	·기획전시 기상사진전 개막식	의원
12/11(화) 18:30	·총무국 집행부 간부와의 간담회	의장
12/13(목) 12:00	·여성단체 고추장 나눔행사	의원
12/13(목) 18:30	·주민생활지원국 간부와의 간담회	의장
12/14(금) 10:00	·스마트 거리 조성 사업 보고회	의장
12/14(금) 19:00	·금정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의장
12/17(월) 14:00	·경남한신A 어린이 놀이터 개소식	의장
12/17(월) 18:30	·도시국 간부와의 간담회	의장
12/18(화) 11:00	·헬로TV신년인사 녹화	의장
12/20(목) 10:00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원
12/21(금) 11:00	·사회적기업 홍보관 개관식	의원
12/21(금) 11:00	·제4차 본회의	의원
12/21(금) 12:00	·구의회 송년회	의원
12/21(금) 12:00	·부곡2동 자충무료급식	의장
12/21(금) 18:30	·공무원노조 2012하반기 퇴임 송별식 및 송년의 밤	의장
12/22(토) 19:00	·제26차 재부호남향우회 금정구지회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의장

일시	내 용	비고
12/22(토) 18:30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송년의 밤	의장
12/22(토) 19:00	·2012생활체육회 송년의 밤	의원
12/24(월) 17:30	·금정구 통장연합회 송년회	의장
12/24(월) 18:00	·민주평통활동보고회 이탈주민 간담회	의장
12/26(수) 17:00	·2012부산 새마을지도자 대회	의장
12/26(수) 18:00	·2012자총사업실적 평가보고회 및 연맹가족 송년의 밤	의장
12/27(목) 12:00	·청룡노포동 부녀회 김장 담그기	의장
12/27(목) 18:00	·2012 민족통일 금정구대회	의장
12/27(목) 18:30	·제7회 노사정 화합 한마당	의장
12/27(목) 19:00	·부곡2동 새마을지도자 송년의 밤	의장
12/28(금) 17:00	·드림스타트 성과 보고회	의원
12/31(월) 15:50	·의회 중무식	의원

주요 의정 활동

■ 의원·직원 송년간담회 개최

▷2012. 12. 21.(금) 12:00 금성동 소재(창녕집)에 의원 및 사무국직원 31명이 '12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의정성과를 되돌아 보고 새해에 보다 활성화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2012년 의회 중무식

▷2012. 12. 31.(월) 15:50 의회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직원 전원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수한 직원 표창수여 등 중무식을 가짐.



5분 자유발언

◆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2. 12. 5.)



정미영 의원

보행자 통로의 개선을 촉구하며

기획총무위원회의 민주통합당 정미영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몇 년에 걸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선을 말씀드려 왔으나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곡3동 번영로 아래의 보행자용 콘크리트 박스와 차량용 콘크리트 박스의 개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지산고등학교 쪽에서 행정동으로는 부곡3동이며 법정동으로는 오륜동으로 들어가는 번영로 아래의 차량용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6미터 정도의 폭에 주정차 금지선도 중앙선도 인도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륜정보산업학교 쪽으로 약 100미터 정도 들어가면 사람만 다니는 보행자용 콘크리트 박스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번영로를 만들 때 차량용과 보행자용 통로를 서로 분리해서 만든 듯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차도이니 사람은 다른 통로를 이용하라는 안내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고 보행자용 통로의 존재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도 물론 없습니다.

이 길은 최근 회동수원지와 수영강 상류의 갈매길이 개발되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금정구 주민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륜동 초입의 이곳 길을 안내하는 행정적인 배려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 차량용 통로는 오후 3~4시 경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사람의 모습이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큰데,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보행자 통로가 아닌 이 차량용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왜 보행자용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차량용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륜정보산업학교라는 팻말을 따라 약 100미터 정도 걸어 들어가면 왼쪽에 보행자용 통로로 추정되는 입구가 나옵니다. 양쪽을 찢어진 현수막과 무단 경작지가 에워싸고 있는 컴컴한 입구는 공포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차량용 통로에서 여기에 이르는 길의 어디에도 몇 미터 앞에 보행자용 통로가 있다는 안내 표지판은 없습니다. 입구에도 이곳이 건너편 오륜동 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표지 또한 없습니다. 평소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통로를 지나면 봄이면 개나리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갈매길 안내판도 물론 없습니다.

보행자용 통로로 내려가는 길은 계단과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경사로는 경사가 너무 급해 장애인이나 유모차는 다닐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통로 내부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정에서 떨어지는 시커먼 시멘트 물로 바닥은 질척하고 낙엽과 쓰레기와 낙서들로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로 벽에 붙은 전등은

청소를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미줄과 끈적거리는 시커먼 먼지로 눈길 주기조차 부담스럽고, 고물상 마당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형광등이 겨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포영화에서 보는 불결하고 어두컴컴한 터널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건너편인 오륜동 쪽으로 나와서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이 통로가 부곡동 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안내 표지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나마 겨우 실체를 보고 추정하여 이 통로를 찾아간 날은 대형 트럭이 입구를 거의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다음날 낮과 밤에 찾아가 보아도 그 트럭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고 불결하기 짝이 없으며 대형 트럭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통로를 무슨 수로 오륜동 주민들과 회동수원지 갈매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오륜동 쪽에서 차량용 통로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오륜동 쪽의 입구에도 이 통로는 차량용이고 바로 옆에 보행자용 통로가 따로 있으니 이용하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이 통로에도 어디서 나오는지 길 양옆으로 물이 새어나와 차도 양옆이 질척합니다. 덕분에 이 통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의 중앙을 걸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 이 물들이 얼어 빙판이 되었을 때의 위험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교통정보연구소의 교통사고조사 사고처리요령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가 우측단을 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 비율이 5%이고 도로의 중앙부분을 통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20%나 됩니다. 이런 악조건의 통로 중앙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금정구는 과연 그 책임을 보행자에게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통로를 이용하게 하려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차량용과 보행자용의 통로를 분리하겠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호 의원

천혜원 행정절차와 의회소통의 문제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살림을 도맡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발로 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일선동의 주민자치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지와 AP, AFP, 블룸버그 등 많은 외신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 뽑혀진 대통령이니만큼 박근혜당선자의 과거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박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은 다같이 지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결산심사를 마치며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13년 예산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노인요양시설확충 정확히는 천혜요양원 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천혜원은 이미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고 올해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천혜원 건립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할지라도 국시비를 통해 윤산입구에 건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굳이 천혜원을 짓고자 한다면 26억원의 국시비가 아닌 자비를 들여서 짓는다면 반대하지 않겠

다는 개인적 의견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금정구청의 해당공무원은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의 담당과장은 2012년 3월26일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보조사업 예산신청’이라는 문서를 담당과장이 전결하고 국장과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시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담당국장과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 때 6월1일 금정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조차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10월21일 가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그 어떤 설명이나 해명조차 없이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절차적 책임을 다하였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정희 구청장께서는 이 사안을 모르고 계셨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원정희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사안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예산철회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안들은 이번의 1회성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상인 금정구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의회 경시풍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정구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금정구의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정구청과 원정희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해 의회와 의원과의 소통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태에 대한 결자해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